

투자목적 및 전략

이 투자신탁은 국제시장에서 금 현물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는 LBMA Gold Price PM (USD) (이하 "기초자산")의 성과를 추종하는 장내 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<기초자산 소개>

LBMA Gold Price PM (USD) : 런던 금시장협회 (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)를 통해 매일 런던시간 오후 3 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미국달러화 표시 금 현물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금 현물 거래 시 기준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펀드내역

펀드규모(NAV) 431억 원

펀드유형 특별자산파생형 투자신탁[금-파생형]
-파생상품투자 : 50% 이상
-채권투자 : 100% 이하

설정일

(운용펀드 : 2008년 07월 14일)

- 클래스 A : 2008년 07월 14일
- 클래스 A-E : 2014년 06월 12일
- 클래스 C : 2008년 07월 14일
- 클래스 C-E : 2009년 04월 01일
- 클래스 C-F : 2019년 05월 31일
- 클래스 C-P2(연금지축) : 2019년 09월 05일
- 클래스 C-P2(연금지축)E : 2018년 05월 31일
- 클래스 S : 2014년 04월 23일
- 클래스 S-P2 : 2017년 12월 05일

벤치마크 LBMA Gold Price PM (USD) 95% + Call 5%

신탁업자 국민은행

환매대금 지급일

| 구분 | 기준가격 적용일 | 환매대금 지급일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17시 이전 | 3영업일 | 5영업일 |
| 17시 경과후 | 4영업일 | 6영업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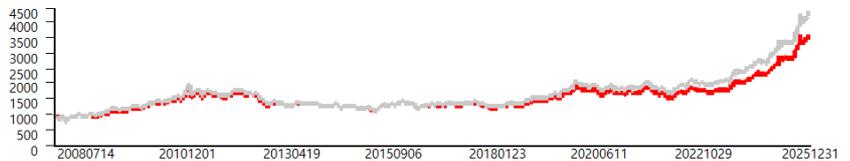
투자위험등급 2등급(높은 위험)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2 | 3 | 4 | 5 | 6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펀드 운용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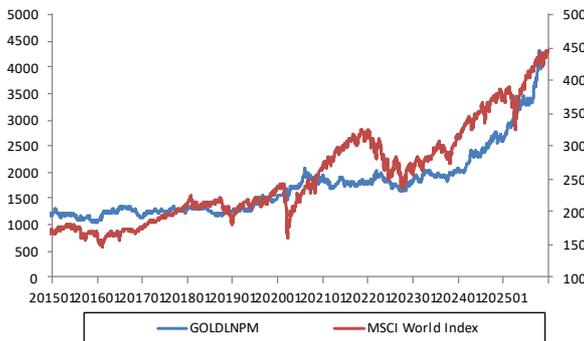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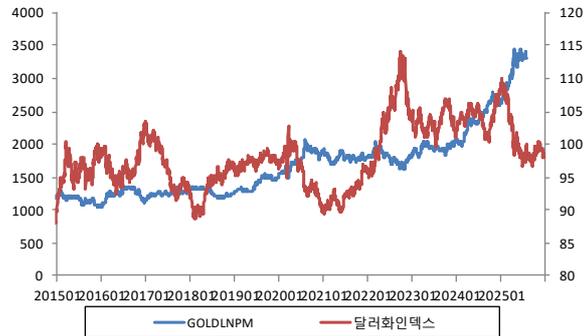
| | 누적수익률 | | | | | | | 설정이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|
| 운용펀드 | 4.42% | 11.54% | 28.27% | 58.05% | 93.37% | 113.31% | 99.03% | 255.44% |
| 클래스 A | 4.34% | 11.28% | 27.66% | 56.56% | 89.70% | 107.21% | 89.47% | 198.98% |
| 클래스 A-E | 4.36% | 11.34% | 27.81% | 56.93% | 90.61% | 108.71% | 91.81% | 151.81% |
| 클래스 C | 4.29% | 11.12% | 27.30% | 55.68% | 87.53% | 103.64% | 83.95% | 168.96% |
| 클래스 C-E | 4.30% | 11.15% | 27.36% | 55.81% | 87.87% | 104.21% | 84.85% | 164.61% |
| 클래스 C-F | 4.39% | 11.43% | 28.01% | 57.42% | 91.83% | 110.58% | 94.39% | 173.56% |
| 클래스 C-P2(연금지축) | 4.34% | 11.28% | 27.67% | 56.58% | 89.74% | 107.30% | 89.68% | 123.42% |
| 클래스 C-P2(연금지축)E | 4.36% | 11.34% | 27.81% | 56.92% | 90.60% | 108.70% | 91.80% | 159.70% |
| 클래스 S | 4.37% | 11.36% | 27.84% | 57.00% | 90.80% | 109.02% | 92.29% | 146.65% |
| 클래스 S-P2 | 4.37% | 11.37% | 27.87% | 57.07% | 90.94% | 109.26% | 92.67% | 162.10% |
| 벤치마크 | 4.90% | 13.45% | 31.72% | 63.50% | 103.37% | 131.97% | 123.86% | 331.81% |

-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.
-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,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(세전 수익률)
-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.



출처: AITAS 시스템 - 운용펀드기준가 - BM기준가

인덱스 현황 (출처: Bloomberg - 2025년 12월말)

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

보수 및 수수료

보수(순자산총액 기준)

- 클래스 A : 총 연 1% (판매 0.5%)
- 클래스 A-E : 총 연 0.75% (판매 0.25%)
- 클래스 C : 총 연 1.6% (판매 1.1%)
- 클래스 C-E : 총 연 1.5% (판매 1%)
- 클래스 C-F : 총 연 0.53% (판매 0.03%)
- 클래스 C-P2(연금저축) : 총 연 1% (판매 0.5%)
- 클래스 C-P2(연금저축)E : 총 연 0.75% (판매 0.25%)
- 클래스 S : 총 연 0.7% (판매 0.2%)
- 클래스 S-P2 : 총 연 0.66% (판매 0.16%)

(공통사항)

운용 0.45%, 신탁 0.0375%, 사무관리0.0125%

선취수수료

-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.0% 이내
- 클래스 A-E 납입금액의 0.5% 이내
- 클래스 C, C-E, C-F, C-P2, C-P2E, S, S-P2 없음

후취수수료

- 클래스 S : 환매금액의 0.15% 이내 (3년 미만 환매 시)

환매수수료

없음

시장동향 및 운용현황

12월 금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주요국 중앙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실질금리 하락 기대와 달러 약세가 금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일부 인사의 추가 완화 가능성 언급은 금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아울러 남미 지역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었습니다. 다만 연말 귀금속 시장 과열에 따른 선물 증거금 인상 이후 차익 실현과 강제 청산 물량이 출회되며 단기 급락이 나타나 금 가격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었습니다.

시장전망 및 운용계획

차기 연준 의장 인선 논의가 본격화되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부각될 경우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. 주요 후보군을 둘러싼 시장의 해석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달러 약세 기대와 맞물려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, 재정적자 확대 우려,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기조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에 부담을 주며 금 상승 여건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과 귀금속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선물 증거금 인상은 투기 수요를 제약하며 금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.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,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,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.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, 투자대상국가의 시장,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.